

제17편 - 제3신앙촌시대(제4부)/ 제18편 - 제3신앙촌시대(제5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67회)

제17편
제3신앙촌 시대(제4부)
一. 완성자 구세주 출현
二. 종교(宗敎)를 개종(改宗)함
三. 결혼을 금지시키고 부부를 갈라지게 함

제18편
제3신앙촌 시대(제5부)
一. 신앙촌과 전도관의 끝마무리 작업 시작
1) 전국 전도관을 팔기 시작함
2) 회사명칭을 시온(ZION)에서 삼광(三光)으로 바꿈
3) 돌연 구판부를 만들
4) 영모님은 고리대금업자?
5) 온천지가 불바다가 된다!

三.結婚을 禁止시키고 夫婦를 갈라지게 함

3) 이것도 쇼를 하신 것인가?

영모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밀실에서 승리자 구세주의 성공적인 출현이 임박해 오면서 구세주 출현의 '아시바' 역할을 하는 전(全) 전도관 사람들은 건물을 다 지은 후의 아시바처럼 필요가 없어진 존재들이 되었다. 더욱이 생수 마시고 무량대수 마귀가 들어간 전도관 사람들인지라 완전히 마귀새끼들로 취급을 하신 것이다. 전도관 간판을 구원이 없다는 대명사가 되어버린 교회간판으로 바꿔 다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전도관은 이미 무량대수 마귀 들어간 것들이 있는 곳이 된지라 이곳은 구원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신 것이다. 마귀들의 법대로 살아가는 세상사람들과 똑같은 곳이라고 알리신 것이다.

그러면 결혼을 강권하다시피 하여 시켜 놓으시고 아들딸 낳고 세상 제미

에 폭 빠질 때쯤 해서 1980년 돌연 금혼령을 내리고 부부들을 다 갈라지게 강요한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인가?
밀실에서 승리하신 구세주께서 출현하시게 되므로 구세주를 통하여 죄의 뿌리까지 뽑아내어 영생을 얻으려면 부부생활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신앙촌과 전도관은 이미 구원이 없는 곳을 교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확실하게 영모님은 알리셨는데 구원이 없는 신앙촌과 전도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는 기본 원리가 되는 남녀간의 관계를 끊게 하신 것이 전도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닐 것이다. 구세주 출현 후에 영생을 얻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무량대수 마귀가 들어가 마귀자식이 되어버린 전도관 사람들을 영모님은 마음대로 가지고 놀면서 쇼를 하신 것이다.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영모님은 인간세상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이를 수도 없고 또한 이해할 수도 없고, 인간들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만 골라가면서 시키신 것이다.
성경에 다음과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다. "이 두 갈림나무 선지자가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로 세상에 거하는 자가 그것을 본즉(그분의 죽음) 즐겁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계 11:10)"
사실 영모님이 화천(化天)하시니까



박태선 장로님의 전도관 역사의 상징인 원효로의 이만재단

즐겁고 기뻐하면서 잘 돌아가셨다고 슬판을 벌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도 표면적으로 영모님을 끝까지 따른 전도관 사람들은 무량대수 마귀가 들어간 상태에 있으면서도 영모님의 최면술에 걸린 듯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순종하고 따른 것이다. 그런데도 그 전도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는 데 '아시바' 역할밖에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무량대수 마귀가 들어간 마귀새끼들이 되었다는 것은 더 더욱 기가 막힌 일이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 모든 것은 완성자 구세주 한 분을 출현시켜야 할 절대적 필요성 때문에 부수적으로 일어난 일이므로 그에 대한 보상으로 구세주 출현 후에는 무량대수 마귀 들어간 '아시바'들도 다 구세주에게로 오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제18편

제3신앙촌 시대 (제5부)

一. 신앙촌과 전도관의 끝마무리 작업 시작

1) 전국 전도관을 팔기 시작함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영모님은 전도관은 구원이 없는 곳이라는 뜻으로 교회라는 명칭으로 바꾸었다. 이때가 1980년도 초반이다. 그때부터 영모님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의미한 말씀을 시작하셨다. "신앙촌이 곧 부도가 나게 생겼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할 일을 다 못해서 부도를 안 낼 수가 없게 생겼다"고 하시면서 "여기가 부도가 나면 모두 사망으로 흩어져야 하고, 너희들이 신앙촌 출신들이

라는 것이 알려지면 말할 수 없는 질시가 가해질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어디에서도 발붙이기가 힘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교역자들은 '설마 그런 일이야 있을 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 입금을 많이 시키라는 독려의 말씀이라고 짐작할 뿐이었다.

그런데 돌연 전도관 건물들과 전도관 유지재단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청원서를 문공부에 내서 허락을 받으라는 영모님의 말씀이 떨어졌다. 신앙촌의 각 공장들이 전도관 유지재단 산하 종교 계통에 너무나도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어 신앙촌 공장들이 다 부도나게 생겼기 때문에 차체에 종교재단 산하의 재산 일부를 처분해서 부도가 나게 된 각 공장들의 부채를 급히 갚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서를 내라는 말씀이다. 부랴 부랴 청원서를 작성해서 문공부에 제출하고 몇 번을 문공부에 들락거린 결과 1981년에 종교재단 재산의 일부를 처분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쓸모없는 땅이나 유지가 되지 않는 전도관을 팔아서 자금을 좀 마련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영모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정말 깜짝 놀랄 일을 지시하시는 것이다. 서울 이만재단(1중앙)과 서울 3중앙전도관, 2중앙 전도관, 9중앙 전도관, 4중앙 전도관 등 지금 말한 제단들을 빨리 다 팔라는 것이다. 그리고 전국의 요지에 있는 제단들도 다 팔 수 있는 것들은 다 팔라고 지시하시는 것이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영모님께서 종교 활동을 중지하시려는 것이 아닌 이상 전도관의 간판적인 제단들을 다 팔라고 지시하시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다. 아무리 종단이 어려워도 종교 활동의 근간이 되는 예배당을 판다는 것은 교단을 없애겠다는 말이 되고, 더욱이 전도관의 상징적인 제단 건물인 서울 원효로의 이만재단이 팔려나가면서는 놀라움과 마음의 갈등을 숨길 수가 없었다.

1955년 1월 1일 서울 왕십리 무학교회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박태선 장로님은 전국 기독교를 중심으로 뜻을 이루려고 하시다가 기독교회의 저항을 받아 전도관이란 명칭으로 다시 시작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전도관을 세우고 소사 신앙촌, 덕소 신앙촌, 기장신앙촌 등의 3개 신앙촌을 세우시면서 150만의 교인들을 이끄셨다. 그 150만명의 교인들은 영모님의 말씀이라면 생명을 내놓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모재 별 총수는 간부회의에서 박 장로의 교인들과 같은 사람 100만명 내게 있으면 못할 것이 없겠다고 부러워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사실 당신이 하시려고 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엄청난 힘을 지니신 영모님이셨다.

정말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른 것일까? 그래서 전도관을 다 팔려고 하시는 것인가? 믿어지지 않았다.*

다음호에 계속

살아서 날아다니는 도를 정도령이 가르치니 힘차게 손뼉치고 혈맥 관통하여 어서 깨닫고 자라거라

격암유록 新 해설
제62회

弄弓歌(二) 농궁가

指路指路直界指路지로지로직계지로
不敎晝夜指掌指路불사주야지장지로
作掌作掌作掌弓작장작장작장궁
血脈貫通作掌弓혈맥관통작장궁에
殲魔殲魔道路殲魔섬사섬마도로섬마
道路道路道路殲魔도로도로도로섬마
道飛道飛活道飛도비도비활도비
길나라비活活道飛활활도비
自長自長遠理自長자장자장원리자장
深理奧理遠理自長시리오리원리자장
꿈나라 月南宮월남궁에
天上榮華暫間천상영화잠간보고
先祖相望相逢선조선영상봉하야
萬端情話만단정화 못 이뤘
靈鷲之聲역계지성 놀라 깨니
日竿三일간삼이 되었구나.

길을 가리키네, 길을 가리키네. 하늘에 이르는 곧은 길을 가리키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손바닥을 치며(손바닥을 힘차게 쳐서 혈맥 관통하라는 의미) 길을 가리키네.
직계지로(直界指路)의 뜻은 이재전전(利在田田)의 목운(72궁)과 금운(81궁)이 말씀하신 곧은 길을 말한다. 계(界)의 형상은 전(田)과 인(人)과 이(二)의 합자이니 그 속에 목운과 금운의 두 분이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작장궁(作掌弓)하며 손바닥을 치고 또 쳐서 혈맥을 관통시키고 또한 똑바로 서서 걸어가야 하니라(섬마는 서마西麻로 보아 서도西道로 인하여 흥역을 치르다는 뜻으로 보기도 한다).

사람이 살아서 날아다니는 도가, 길나라비 지어 살아서 훨훨 날아 다니는 도가 나오느니라.

아기를 재우는 자장가는 원대하고 깊고 오묘한 이치가 들어있나니 잘 깨닫고 자라도록 해야 하느니라. 아기는 미륵불(구세주/정도령)을 배워 구세주가 되려는 사람을 일컫는다.
꿈나라 월남궁(月南宮)에서 천상의 영화를 잠깐 보고 선영(先營)의 조상들과 서로 만나 온갖 정담을 나누던 중 영계(靈鷲) 소리에 놀라 꿈을 깨고 보니 해는 벌써 세 발 장대만큼이나 올라 왔구나. 영계(靈鷲)는 때를 알리는 영적인 답이니 곧 정도령의 출현을 말한다. 日竿三(일간삼)은 진리의 태양인 삼위일체 구세주 정도령의 출현을 뜻하는데 밝음과 출현의 때를 암시하고 있다.

魂迷精神은미정신 가다듬어
極濟萬民救活극제만민구활고저
一燭光明일촉광명 손에 들고
塵海業障突破진해업장통파할제
孝當竭力忠則盡命효당갈력충즉진명
우리阿只榮貴이지영귀하다.
立春大吉建陽多慶입춘대길건양다경
陽來陰退肇乙矢口양래음퇴조을시구
天增歲月人增壽천증세월일증수는
東方朔동박사의 延壽연수이요.
春滿乾坤福滿家춘만건곤복만가는
石崇公석송공의 富貴부귀로다.
堂上父母千年壽당상부모천년수는
先後天地合運時先後지합은시오.
膝下子孫萬世榮슬하자손만세영은

永無惡臭末世界영무악취말세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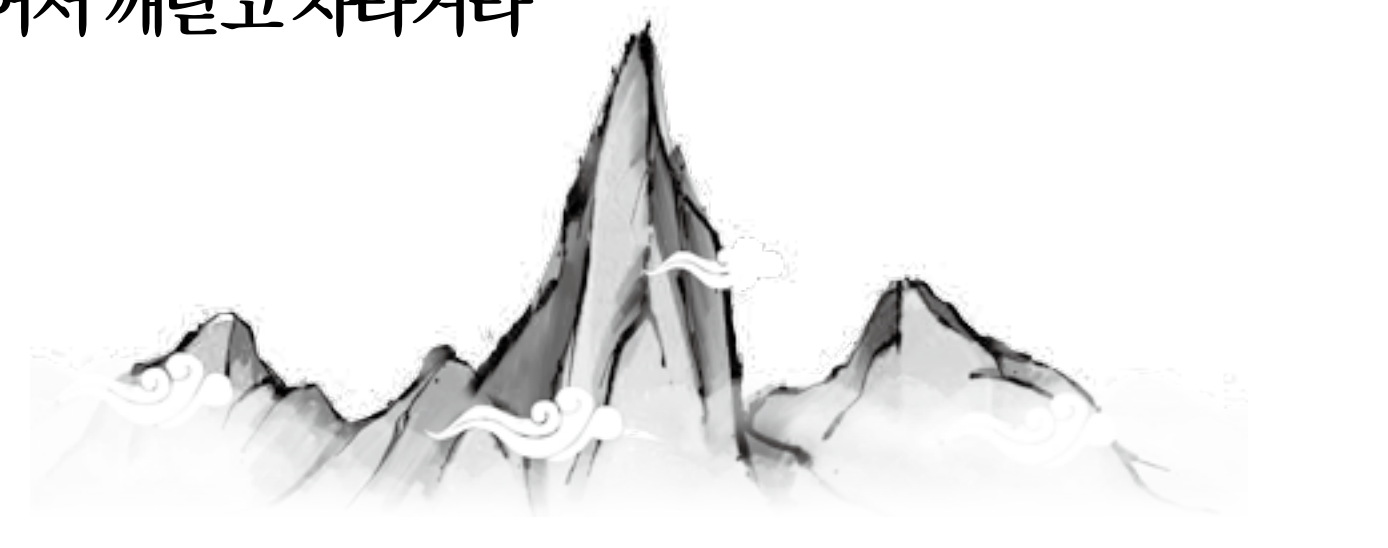
흔미한 정신을 가다듬어 세계만민을 구제하고 구원하여 살리고자 천상의 광명(감로해인=빛의 면류관)을 손에 들고 티끌 같은 고해(苦海)에서 수많은 업장을 돌파할 때 효(孝)와 충(忠)을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 바쳐 힘쓰시니 우리의 정도령 구세주 참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하도다.

아지(阿只)는 마방아지(馬方阿只)이며 정도령 구세주를 말한다.

삼위일체 구세주 하나님이 나오시니 크게 길한 일이요. 양도(陽道) 즉 삼위일체 구세주 하나님이 불사영생의 진리를 굳건히 세우시니 온 우주가 다 함께 기뻐하며 경축(慶祝)할 일이다. 불사영생의 진리 즉 빛의 세상(구세주의 세상)이 오고 사망 즉 어둠(마귀)의 세상이 물러가게 되니 정말 좋구나.

하늘은 세월을 더하고 사람은 수명을 더하니 삼천갑자(三千甲子) 동방삭이가 해마다 수명을 더한 것과 같고 온 천지에 봄기운이 충만하고 복은 온 집안에 가득하니 석송공의 부귀영화가 따로 없도다.

대청마루에 계신 부모님이 천수(千壽)를 누리심은(천수天壽를 넘으면 신선이 된다는 말이 있다) 선천과 후천의 천지가 합하여 중천운(中天運)이 열리는 때요. 슬하(膝下)의 자손들이 만세의 영화를 누리게 됨은 영원토록 마귀의 악취가 없어지는 말세의 신선세계가 열



릴 때로다.

願得三山不老草원득삼산불로초는
有雲雨變化世유운우변화세요.
拜獻高堂白髮親배헌고당백발친은
紫霞島中弓乙仙자하도중궁을선
三八雨辰十二月삼팔우진십이월에
一于縱行東運樑일우중행동운주요.
四九八兄一去西中사구팔형일거유중
始數橫行西運樑시수횡행서운량음
西氣東來此運回서기동래차운회에
山澤通氣配合산택통기배합하야
陰陽相親음양상친하고보니
十五眞主肇乙矢口십오진주조을시구
亞僚 十數之人아僚 十數之人불야중불십수지인
萬人苦待眞人만인고대진인이라.

진정 얻고 싶은 삼신산의 불로초는 구름이 있으면 진짜 비로 변하여 내리듯이 무공조화의 권능이 있는 감로해인이 내려서 이 세상을 죽을 없는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시키느니라.
삼신산의 불로초를 구하다가 높은 마루에 계신 부모님께 절하며 올려드리면

백발이 성성하시던 양친(兩親)이 자하도의 궁을신선처럼 다시 젊어지리라.

삼팔은 목(木)이요 진(震=우진雨辰)은 동방이며 청(靑=十二月)이니 일(一)을 가로 세로로 그으면 십(十)자가 되고 이 십(十)자가 동(東) 즉 목(木)운의 기운이 되고 사구(四九)는 금(金)이요 태(兌=八兄팔형)는 서방이며 일(一)자를 사망을 가로로 그으면 서운(西運) 즉 금운으로 대들보가 되느니라.

일거유(一去西)는 서(西)를, 시수(始數)는 일(一)자를 말한다. 서방의 기운

이 동방으로 오게 되는 이 운(運)이 돌아오매 산(岫山=良간=양괘)과 택(沃澤=담태=음괘)이 기운이 서로 잘 통하고 짝이 잘 맞아 음양(陰陽)이 서로 친하여 화합하니 조을시구 십오진주(十五眞主)가 나오느니라.

불야(亞)는 우주에 으뜸가는 미륵불이요 십승(十勝)의 운수를 가진 분이요 만행이 고대하던 진인(眞人)이시라.*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종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에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광고 및 구독신청
우 422-826		전화 032) 343-9985
홈페이지 www.victor.or.kr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